

광복80년, 국민주권·미래를 세우다



▲광화문 국민임명식장에 선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광화문 국민임명식...정치·언론·사법개혁에 박차 李대통령 “국민 주인 나라·국민 행복 나라” 연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향한 새로운 출발을 선언했다. 국민과 함께하는 임명식이라는 독특한 형식을 통해 주권자의 의지를 되새기고, 국민 통합과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일부 야당의

스크린이 곳곳에 배치돼 참석자 누구나 무대를 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전통적인 취임식과는 다른, 시민 참여 중심의 형식이 돋보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무대에 올라 “국민이 주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임명식에서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불참으로 ‘반쪽 행사’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현장을 채운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은 이를 압도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끌어냈다. 지난 15일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은 ‘광복 80년, 국민 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조기 대선으로 정식 취임식을 치르지 못한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국민 주권 정부의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행사장에는 국민대표 80인을 비롯해 각계 인사, 초청 국민, 일반 시민 등 약 1만 명이 함께했다. 행사장은 국민 소통의 상징을 담아 원형 무대가 설치됐고, 대형 LED 타워와 보조

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향해 직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국민대표 80인이 직접 작성해 무대에 올린 ‘국민 임명장’은 대통령과 국민이 상호 신뢰와 책임을 약속하는 상징으로 주목을 받았다. 민주주의, 경제, 과학기술, 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낸 국민뿐 아니라 사회의 일상을 지켜온 평범한 이웃들이 함께 이름을 올려 의미를 더했다. 행사에는 광복 이후 80년간 대한민국을 일군 주역들과 미래 산업을 책임질 청년들, 사회적 고난을 극복한 이웃들이 참여해 국민통합의 가치를 보여줬다. 일부 야당인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불참



▲국민임명장을 들고 선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김혜경 여사. (사진=대통령실)

했으나, 현장에 운집한 시민들은 취지에 공감하며 열렬히 호응했다. ‘반쪽 행사’라는 정치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공감대는 뚜렷하게 드러났다. 이번 국민임명식은 단순한 취임식 대체가 아니라, 국민주권을 정치문화의 중심에 세우는 새로운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특히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시점에서 열려, 주권 회복의 역사적 의미와 국민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는 비전을 동시에 담아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며, 국민이 하나 되는 나라, 평화로운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남북관계 개선과 국민

통합, 그리고 평화 실현 의지가 강조됐다. 행사는 주요 방송사에서 생중계돼 전국으로 전달됐으며, 현장은 그야말로 ‘국민 대축제’의 분위기를 띠었다. 특히 임명장 수여와 함께 국민의 목소리를 상징하는 ‘빛의 임명장’이 완성되는 장면은 행사 하이라이트로 꼽혔다. 이는 형식적 절차에 그쳤던 과거 취임식과 차별화된, 새로운 정치적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걸으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 가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이번 국민 임명식은 광복 80주년의 역사적 의미 위에 국민주권 시대를 여는 정치적 이정표로 기록될 전망이다. 정치팀